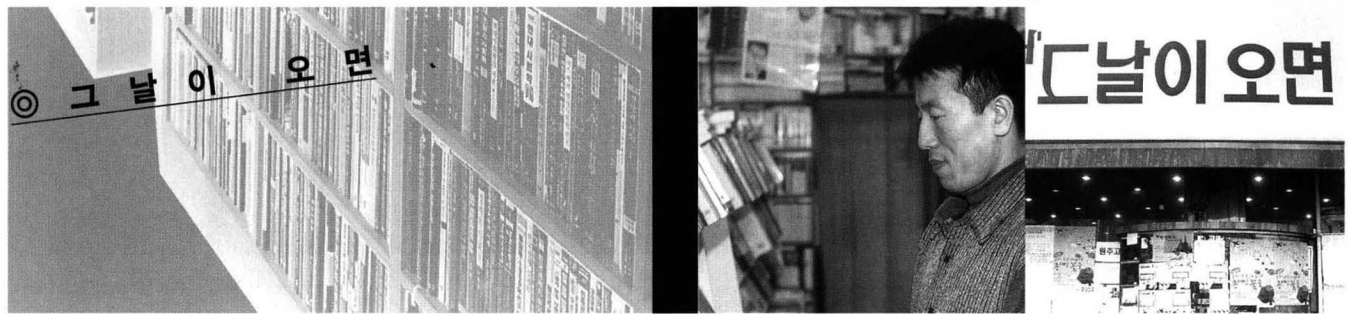


# “함께 가자”, 학생들을 부르는 대학가 앞 서점들

책도 읽고, 새로 나온 책들도 훑어볼 수 있고, 사람도 기다리고... 대학가 앞 서점들은 약속장소로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단순히 책을 팔고 사는 공간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대학가 인문사회과학 서점에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 시내에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라고 해서 남아 있는 곳은 서울대 앞의 ‘그날이오면’, 건국대 앞의 ‘인서점’, 성균관대 앞의 ‘논장’과 ‘풀무질’, 중앙대 앞의 ‘침묵’ 정도뿐인데 시대가 바뀌다보니 이 서점들도 새로운 역할을 고민받고 있다. 그리고 이들도 인문사회과학 전문서점의 성격을 1980년대처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학교 신입생들에게 이 서점들이 갖는 의미가 이전 선배들과 같을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학생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나름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 서점의 존재 이유

서울대 앞 ‘그날이오면’은 지난 1993년부터 김동운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1988년 생긴 ‘그날이오면’은 교통사고로 대표가 죽고 주변사람들이 운영하던 것을 1990년 현재 김동운 대표의 부인인 유정희 씨가 인수한 것이다.

2층 서점 카페에서 저자들과의 대화를 마련한다거나 <그날에서 책읽기>라는 서점 소식지를 발간하는 등 1990년대 중반 들어 인문사회과학 서점의 명맥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날이오면’은 나름의 역할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저자들과의 대화는 포스터 제작비나 사진 홍보비, 업무 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해 얼마 전부터 잠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날에서 책읽기> 역시 웹진으로의 변형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로, 당분간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이처럼 이미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어진 시대에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서점도 변화의 바람 앞에서 의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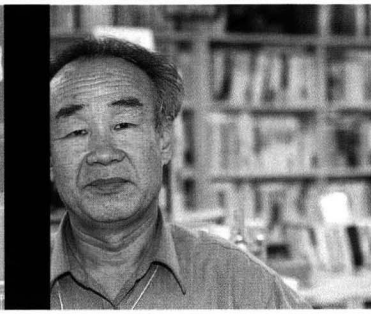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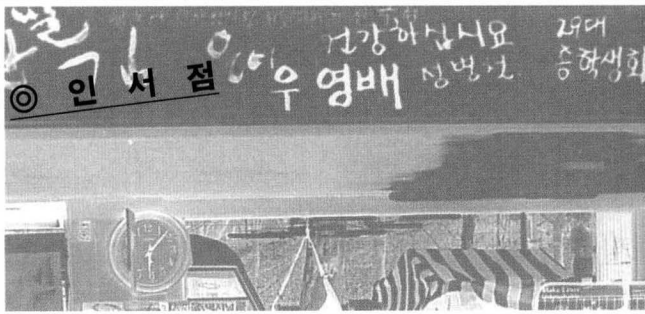
“저희 서점은 과거의 인문사회과학 서점 성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문사회과학 서점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버티고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희 서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이 서점은 사라지지 말고 남아 있어야 한다는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매장 전시라든가 서비스 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대표는 책값 할인, 마일리지 제공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서점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곳은 학교를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필요성을 느껴 찾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어요. 세미나나 약속 장소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매장 배치를 인문사회과학 서점을 찾는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벽 둘레로는 출판사별로 책을 비치하고 중앙은 분야별로 배치하는 등 일목요연하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서점의 다른 점을 또 하나 들자면 출판사와 85퍼센트 정도로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1만 원짜리 책 기준으로 할 때 서점은 소설의 경우 평균 30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보지만 인문사회 책은 20~25퍼센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판매업에 비해 수익률이 적다. 더구나 도매점을 통해 책을 받는 소규모 서점의 경우 들여온 책이 팔리든 팔리지 않든 도매상에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 오히려 판매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날이오면’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야 대학가 서점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직거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날이오면’은 서울대 교내의 여러 매체들이나 학회 소식지들과의 연계를 취하고 있다. 학회나 학생들 세미나를 위한 신간을 보내고 모임 장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앞으로는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학생들이 만든 서점

건국대 앞 '인서점' 심범섭 대표는 평생 서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982년에 문을 연 '인서점'은 지난 1995년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 현재는 그의 딸이 서점 운영을 돕고 있다.

'인서점'은 학생들이 만든 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인서점'이 어렵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반지하에 있던 것을 현재의 자리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었고, 공사도 직접 거들었다. 서점 벽에는 이들의 사인이 지금도 남아 있다.

"제가 주례한 사람들만도 6백 명이 넘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운동을 하는 친구들 주례를 썼는데 신랑 신부 모두 수배자고 찾아올 하객들도 대부분 수배자라 산에서 몰래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밤 12시에 한 결혼식, 밖에서 형사들이 지키고 있는 결혼식, 청첩장과 신랑 신부 이름이 틀리기도 한 결혼식... 정말 사연도 많고 눈물겨운 이야기도 많죠."

심범섭 대표는 예전부터 워낙 서점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가난'한 삶의 방식에 익숙한 터라 현재라고 특별히 더 어렵지는 않고 아직은 버틸 만하단다.

"오래된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 목록도 역시 다른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과 일치해요. 사실상 1980년대의 인문사회과학 서점 성격은 사라졌다고 봐야죠. 다만 저는 저희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좋은 책을 갖다 놓고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가 앞 인문사회과학 서점이 사라지고 작은 서점들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책이 안 팔리는' 시대 흐름 때문이지만 기성세대나 출판계가 청년들에게 청년성을 살려주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던가에 의구심을 갖는다. 인문사회과학 서점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전 세대들이 그들의 정신적인 지향성이랄까 목표의식을 현재의 젊은층에게 불어넣어 주

지 못하면서 책을 안 읽는다느니 이상이 없다느니 비판하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대학은 수천 명부터 몇 만 명까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지식과 문화의 공간입니다. 사회라는, 틀이 짜여진 구조에 갇히기 전 4년간이라는 유예기간을 얻은 학생들이 이 시간을 대학인다움을 살리기 위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학교 앞의 서점 한 곳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대학생생활과 대학을 지적,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꾸미는 것이 아니겠어요?"

학생들은 물론 서점과 출판계가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시대변화에 맞게 모색해 나갈까 지속적인 고민을 해야 출판계도 활성화되고 대학가 서점들도 백 년, 이백 년을 갈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서점이나 출판계가 독자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어야 좋은 책이 많아질 것입니다. 독자들의 의식이나 현실보다 뒤져 있다면 굳이 누가 책을 사러 서점을 찾겠습니까. 제 생각엔, 저자들은 독자보다 세 걸음 앞서 나가고, 출판사는 두 걸음 앞서 나가고, 서점은 한 걸음 앞서 나가면 자연스레 책 읽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 대표의 말처럼 시대 양심의 공간이었던 대학가 서점들의 정체성 고민과 변화의 폭은 성균관대 앞 '논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논장(대표 이재필)은 "지난 1980~90년대처럼 사회과학 서점들이 격변하는 시대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변신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회과학 서점의 배타성을 벗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논장의 경우처럼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서고자 노력하는 이들 대학가 서점들의 변화가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

취재 양선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